

李白의 《蜀道難》에 대한 提言

郭利夫*

目次

- I. 序論
- II. 舊說에 대한 評價
- III. 結論

I. 序論

李白(字:太白, 701~762)의 《蜀道難》은 본래 〈相和歌·瑟調曲〉의 舊題인데, 그가 이 古題를 빌려 자신의 懷抱를 전달한 것으로서 古今의 詩歌에서 傑作中の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李白 외에도 蜀道에 대하여 읊은 詩人은 梁代의 簡文帝, 劉孝威, 陳陰鏗, 唐代의 張文琮 등이 있는데, 유독 李白의 《蜀道難》이 그 文學的 價値를 인정받은 것은 그가 이 作品을 통해 蜀道の 險峻함과 그 景物을 奇妙하게 描寫하여 生動感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作品에 自身의 感懷를 잘 融化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唐代의 殷璠(丹陽人, 進士, 生平未詳)은 《河岳英靈集》에서:

“其爲文章，率皆縱逸，到如蜀道難等篇，可謂奇之又奇，然自騷人遺，鮮有此體也。”

[그(太白)가 쓴 文章은 다 豪縱逸懷함을 지니고 있는데, 蜀道難 등의 作品에 이르러서는 雄奇함 중에 또 雄壯하고 奇妙함이 있다 라고 할 만하다. 騷人(屈原)이래로 이런 文體는 드물었다.]”

라고 하여 《蜀道難》의 作品을 극찬하였다. 또 當時의 著名한 詩人인 賀知章(659~744, 字:季眞)은 會稽, 永興人(지금 浙江, 蕭山)이며 禮部侍郎과 太子 賓客을 역임한, 그로부터 李白은 “謫仙”

* 人文大學 助敎授

1) 殷璠, 《河岳英靈集》

이라는 別號를 받았으니 榮譽가 아닐 수 없다. 그 이후 親交를 맺었고, 또한 몇분의 文人, 書藝家等과 어울려 술을 자주 마시니 그들을 “酒中八仙”이라고 하며 杜甫는 《飲中八仙歌》를 읊었다. 李白은 蜀地方의 方言을 사용했으며, 誇張, 感歎, 反復 等の 表現技法으로 蜀으로 가는 길의 險難함을 심각한 神話와 歷史性에 입각하여 描寫했기 때문이다.

이 作品은 詩人의 性格처럼 奔放하고 豪宕하여 浪漫主義의 色彩를 짙게 풍기고 있다. 그가 이러한 作品을 쓸 수 있었던 것은 少年期를 蜀에서 지내면서 學業에 열중한 것과 成都를 中心으로 蜀의 名山 大川을 돌아 본 결과라 하겠다.²⁾

그러나 지금까지 李白의 《蜀道難》에 대한 見解는 學者마다 구구하여 아직까지 정립된 學說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本 作品의 쓰여진 時期와 地點, 製作動機에 대해서는 各各 그 學說이 紛紛하다. 詩人 自身이 明確하게 그의 意圖를 밝힌적이 없기 때문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既存의 諸學說들을 考察하고 評價함으로써 李白의 《蜀道難》에 대한 올바른 解釋을 내릴 수 있는 根幹을 만드는 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II. 舊說에 대한 評價

李白의 《蜀道難》의 製作動機, 쓰여진 時期, 地點에 대한 既存의 說은 紛紛한데, 먼저 製作動機에 대한 代表的인 것을 종합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蜀道難》은 嚴武가 瑒官과 杜甫를 危害하려는 것을 풍자하여 썼다는 說.

둘째, 《蜀道難》은 唐 玄宗皇帝가 安史의 亂 때 蜀에 피신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여 썼다는 說.

셋째, 《蜀道難》은 章仇兼瓊가 中央政府의 통제를 벗어나 吐蕃을 멋대로 정벌하려는 것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說.

넷째, 《蜀道難》은 그저 樂府舊題를 사용하여 특별한 寓意없이 蜀道の 險峻함을 새로운 이미지로 썼다는 說.

등이 그 主流를 이룬다고 하겠다. 이러한 各說들을 提起한 學者와 그 근거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蜀道難》에 대한 一般的인 說들을 요약적으로 유추해 보고, 李白의 主旨를 探索해 보겠다.

먼저 첫째의 《蜀道難》은 嚴武가 瑒官과 杜甫를 危害하려는 것에 대해서 풍자해서 썼다는 說을 살펴보겠다. 이 說은 《新唐書·嚴武傳》과 唐代 范攄의 《雲溪友議》에서 얘기하고 있다.³⁾

《新唐書》卷 129, 《嚴武傳》에서 보자면;

瑒以故宰相爲巡內刺史, 武慢倨不爲禮. 最厚杜甫, 然欲殺甫數矣. 李白爲《蜀道難》者, 乃爲瑒與杜危之也.

2) 拙稿, 《李白의 《蜀道難》에 나타난 藝術性 考》,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三十輯, 1990.

3) 楊齊賢, 《分類補注李太白詩》卷三. 四部叢刊本에서도 이 說을 얘기하고 있다.

[瑒官이 옛 재상을 지냄으로써 巡內 刺史가 되었다. 嚴武는 거만하여 禮儀를 포하지 않았으나 杜甫에게는 매우 禮儀있게 대했다. 그러나 杜甫를 죽일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이었다. 李白이 《蜀道難》을 쓴 것은 곧 瑒官과 杜甫가 위태롭기 때문이었다.]⁴⁾

라고 하였으며, 范攄의 《雲溪友議》卷二에서는:

李太白作蜀道難, 乃爲瑒杜危之也… 李翰林作此歌, 朝右聞之, 疑嚴武劉焉之志.

[李白이 촉도난을 지은 것은 瑒官, 杜甫가 위태롭기 때문이었다… 李翰林이 歌辭를 지어서, 朝廷의 右相이 이를 듣고 嚴武에게 죽이려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⁵⁾

라고 하여 嚴武가 瑒官과 杜甫를 危害하려함에 李白이 그것을 경계하여 지었다고 가장 먼저 제기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說에 대해서 洪邁의 《容齋續筆》卷六에 보자면:

甫集中詩, 凡爲武作者幾三十篇. 送其歸朝者曰, “江村獨歸處, 寂寞養殘生.” 喜其再鎮蜀曰, “得歸茅屋赴成都, 直爲文翁再剖符” 此猶是武在時語. 至哭其歸櫬乃八哀詩, “記室得何遜, 輜冷愧子荆” 蓋以自況 “空餘老賓客, 身上媿簪纓” 又以自傷, 若果有欲殺之怨, 必子應眷眷如此. 好事者但以武詩有 “莫倚善題鸚鵡賦” 之句, 故用證前說, 引黃祖殺禰衡爲喻, 殆是痴人面前不得說夢也.

[杜甫集의 詩 가운데 嚴武를 위해 지은 작품은 거의 30篇이나 된다. 그가 조정에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환송하며 지은 詩에 “江村에서 홀로 떠나 보내는 이곳에서, 외롭게 남은 생애 보내려네.”라 했고, 그와 鎮蜀에서 재회함을 기뻐하며 “머집에서 돌아와 成都에 이르러, 곧 文翁과 함께 관직을 지내게 되었네.”라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嚴武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 한 것이다. 그가 죽자 八哀詩에 “집안에 은둔해 있어도 어이 빠질 수 있는가, 兵法은 子荆도 부끄럽게 했거늘”이라 하여 스스로 비유했고, “남아 있는 늙은 나그네, 몸 위의 벼슬자리 부끄럽기만 하네”라고 스스로 가슴 아파했다. 만약 죽이고 싶은 원한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처럼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말하기 좋아 하는자들이 다만 嚴武의 詩句인 “鸚鵡賦를 詩題로 삼기 좋아 하지 않았네”라는 것으로 앞의 說을 증거로 삼아 黃祖가 禰衡을 죽인 것을 비유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바보 앞에서 꿈의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⁶⁾

라고 하여 杜甫와 嚴武의 절친함을 詩句節을 들어 얘기 하였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자들이 嚴武의 “莫倚善題鸚鵡賦”라는 詩句節을 引用하여 이런 說을 제기했지만, 바보 앞에서 꿈얘기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4) 《新唐書·嚴武傳》卷 129.

5) 范攄, 《雲溪友議》卷2

6) 洪邁, 《容齋續筆》卷6

또한 《新唐書》는 唐人小說을 근거로 하여 지은 것이기에 더욱 믿을 수 없다.” 만약 이《新唐書》의 說을 믿는다면, 쓰여진 時期는 報應 元年(762)에서 廣德 2年(764) 사이에 쓴 것이라야 부합되는데, 杜甫가 琰官에게 의지해 生活한 時期는 天寶 12年(753) 일이며, 《蜀道難》을 쓴 時期에 대해서 보자면, 殷璠의 《河岳英靈集》은 李白, 王維 等 24人에 대한 二百參十首가 실려 있다. 이 詩들은 대부분 開元 2年(714)부터 天寶 12年(753) 사이에 쓰여진 것 들인데, 특히 開元 15年(727) 이후의 작품이 많다. 수록된 詩들은 당시에 杰出的 作品들이며 비교적 代表作들이다.” 예를 들자면 李白의 《蜀道難》, 《將進酒》 等과 王維의 《少年行》, 孟浩然的 《夜歸鹿門歌》, 高適의 《燕歌行》 等이 있다. 李·杜로 並稱되는 杜甫의 作品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데 李白보다 11歲 年下인 杜甫는 편찬할 때 文名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故로 《蜀道難》은 天寶 12年 이전에 쓰여졌어야만 한다. 또한 《河岳英靈集》에는 人口에 膾炙되는 作品들만 選錄되었으므로, 時期的으로도 맞지 않아 《新唐書》의 說은 否認되어야만 한다.

다른 반박으로는 嚴武가 成都尹事로 있었던 시기는 上元 2年(761)末인데, 《唐書》의 史料에 의하면 이때 李白은 長安에서 멀리 떨어진 當塗縣의 李陽冰의 집에 병들어 누워 있다가 죽었으니 享年 62歲 寶應 元年(762)였다. 臨終을 앞둔 李白이 어찌 杜甫가 위험한 것을 알고 노심초사 했겠는가?

위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첫번째 說은 嚴武나 杜甫의 친분관계를 살펴보거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否認되어야만 한다.

둘째 說은 唐 玄宗皇帝가 安祿山의 亂 때 蜀에 피신하는 것을 걱정하여 썼다는 것이다. 이 說을 주장한 이는 元代 蕭士贊[字:粹可 贛州 寧都(지금의 江西省 寧都縣人)]과 清代 沈德潛[(1673~1769, 字:確士, 號:歸愚 江南 長州(지금 蘇州)人, 乾隆 四年(1739) 進士)]인데 蕭士贊은 《分類補注 李太白詩》 卷三에서;

賞以全篇詩意與唐史參考之, 蓋太白初聞祿山亂華, 天子幸蜀時(天寶 15年) 作也. ……太白深知幸蜀之非計, 欲言則不在其位, 不言則愛君憂國之情不能自己, 故作是詩以達意.

[全篇의 詩意와 唐史로써 참고해 보면, 太白은 安祿山의 亂에 皇帝가 蜀에 피신한다는 말을 처음 들을 때 (天寶 15年) 지은 것이다. 太白은 蜀에 피신하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님을 잘 알아 進言하려고 했으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 하지 않으면 忠君 憂國의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눌 수 없어 이 詩를 지어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며 沈德潛 역시 康熙 54年(1715) 편집된 《唐詩別載集》에서 이 說에 적극 同意하였다!¹⁾

- 7) 錢謙益, 《杜詩箋》附錄에 “按嚴武死生交誼見於詩篇者甚至. 鉤簾欲殺, 出於《雲溪友議》, 實齊東野人之語. 宋子京好摭摭小說, 故妄載之, 當以舊書爲正.”이라 하였고, 또 《新唐書》에 붙은 《考證》에 역시 “恐好事者爲之, 新書喜聞其說而採之, 當從舊書.”라 하였다.
- 8) 金開誠, 葛兆光, 《歷代詩文要籍詳解》 pp.73~74. 北京出版社 1988.
- 9)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卷3, 台北, 世界書局, 1980.
- 10) 沈德潛, 《唐詩別載》 卷7, “諸解紛紛, 蕭士贊謂祿山亂華天子幸蜀而作爲得其解, 臣子忠愛之辭, 子必尋常整. ……”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두번째 說은 매우 牽強附會의¹¹⁾인 것으로 역시 時期的으로 맞지 않는데 五代 王定保의 《唐摭言》卷七의 〈知己條〉에 보자면:

李太白始自西蜀至京，名未甚振，因以所業贊謁賀知章。知章覽《蜀道難》一篇，揚眉謂之曰，“公非世之人，可不是太白星精聊？”

[李太白이 처음 蜀에서 서울(長安)에 이르렀는데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때다. 그래서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賀知章을 알현했는데, 知章은 《蜀道難》一篇을 감상하고 깜짝 놀라 “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太白星의 星精이 아닌가?”라고 말했다.]¹²⁾

사실 李白은 史料에 의하면 두번 장안에 들어가서 賀知章을 만났는데, 이 《唐摭言》의 기록이 믿을 만 하다.¹³⁾ 왜냐하면 후일 李白이 《贈從弟南平太守之遙》의 詩에서 그 때를 회고했는데, “當時笑我微賤者，却來請謁爲交歡。”(당시에 나를 미천하다고 비웃던 자들이, 오히려 찾아와 만나기 청하며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다.)라는 句節은 일맥 상통하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뒷 날 《新唐書》에서는 이러한 史實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고의적으로 “知章見其《蜀道難》”을 바꾸어 “知章見其文”이라 적어 후일 앞에서 언급한 첫번째 說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李白이 《蜀道難》을 賀知章에게 보여드린 시기는 대략 天寶 元年(742)이며, 이것은 玄宗皇帝가 蜀지방으로 피신한 天寶 15年 즉 至德 元年(756)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內容面에서 考察해 보면 《蜀道難》은 그 情趣가 豪快하고 대체적으로 樂觀의이며 悲哀나 愁苦함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蜀道山川의 雄壯함과 險峻함을 읊었고 자신의 感懷를 表現했을 뿐이다. 만약 이 作品이 玄宗皇帝의 蜀지방으로 避身할 때, 즉 安祿山의 亂에 지어진 것이라면 과감히 進言하는 詩句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 당시 지은 다른 作品들에서는 매우 침울하고 비참한 動亂의 양상과 현실을 반영하는 詩句들이 많이 보인다. 安祿山의 亂 때 지은 詩 《經亂後將避地剡中留贈崔宣城》를 例로 보자.

雙鶴飛洛陽，五馬渡江徼。
何意上東門，胡雛更長嘯。
中原走豺虎，烈火焚宗廟。
太白晝經天，頽陽掩餘照。
王城皆蕩覆，世路成奔峭。
四海望長安，曠野寡西笑。

11) 金開誠, 葛兆光, 前揭書, pp.139~140.

12) 《唐摭言·知己條》卷7, 《二十五史本》

13) 다른 기록으로는 唐代 孟榮의 《本事詩·高逸 第三》에 “李太白初自蜀至京師，舍於逆旅，賀知章聞其名，首訪之，既奇其姿，復請所爲文，出《蜀道難》以示之。讀未竟，稱嘆者數四，號爲謫仙，解金龜換酒，與傾盡醉，期不間日，由是稱譽光赫。”이 있다.

14) 大野實之助 著 《李太白詩歌全解》 p.998,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15) 王輝斌 《蜀道難》探索, 《李白研究論叢》 p.227, 巴蜀書社, 1987.

蒼生疑落葉，白骨空相弔。
連兵似雪山，破敵誰能料。

[雙鶩는 洛陽城에 날오고,
五馬는 강의 경계를 건너네.
어떤 마음으로 東門에 오르나,
오랑캐 녀석들 길게 울부 짚는데.
中原엔 승냥이떼 설쳐대고,
뜨거운 전란의 불길은 종묘를 태우네.
太白星은 한 낮에 하늘을 지나,
해거름에 남은 햇별 가리네.
王城은 다 혼란스럽고,
세상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네.
四海에서 長安을 바라보니,
눈썹 찌푸려 서쪽 향해 웃을 일 없구나.
蒼生의 목숨 낙엽인가 의심되고,
白骨들만 공연히 서로 조의 표하네.
연이은 전란은 눈 덮힌 산 같은데,
적군 격파하는 일 누가 생각하는고]16)

위의 詩 “中原走豺虎，烈火焚宗廟” 나 “蒼生疑落葉，白骨空相弔”와 같은 句節은, 당시의 처참한 動亂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太白晝經天”처럼 動亂이나 戰爭을 길게 暗示하고 있다. 太白星 즉 金星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저녁에는 서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고운 자태를 자랑하지만, 太白星이 한 낮에 하늘을 지나면 天下가 시끄러워져 전쟁이 일어난다고 《漢書》와 《文獻通考》에 쓰여져 있다.¹⁷⁾

李白은 그의 任俠한 性格처럼 신랄하게 조정의 무능과 백성의 고난을 直說的으로 表現한 詩들이 많이 남아 있다.¹⁸⁾

李白의 豪放한 性品으로 보건데 만약 《蜀道難》을 이 시기에 지었다면 분명히 그 作品속에 戰亂의 흔적을 보였거나 여실히 드러내어 당시의 참혹하고 비참함을 풍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作品에는 蜀道の 山川 景觀을 修辭學的인 技法으로 描寫했을 뿐, 戰亂의 비참한 현실이나 침울한 情調를 찾아 볼 수 없다.

故로 近代의 學者 樊輿은 아래와 같이 그의 見解를 밝히고 있다.

16) 大野實之助 著, 前掲書, p.819.

17) 久保天隨 著 《李太白全詩集》中卷 p.353, 日本圖書, 1988.

18) 李白의 《猛虎行》, 《春於姑熟送趙四流炎方序》, 《贈武十七諤》 등의 詩에도 당시 戰亂의 참혹함이 잘 드러나 있다.

假若這篇詩是反對明皇幸蜀的話，在這種國家與人民生死存亡的緊要時刻，詩人的情感爲甚麼來得如此和緩而不是激烈悲憤的呢？爲甚麼沒有反映出當時殘酷的現實與詩人對君主的不滿呢？詩人爲甚麼不敢大膽直接地說出玄宗幸蜀之非呢？李白蜀道怕得君主而故意這樣隱喻與含混其詞麼？這是與李白那種奮勇當先，爲國圖存的愛國主義精神不相符合的，與李白的精神相違背的。

〔만약 이 詩(蜀道難)이 玄宗皇帝가 蜀에 피신하는 것을 반대했다면, 이렇게 국가와 인민의 生死存亡의 긴박한 시기에 詩人の 정감은 왜 이처럼 완만하고 격렬 비분하지 않았겠는가? 왜 당시의 잔혹한 현실과 詩人の 황제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詩人은 왜 과감히 玄宗皇帝가 蜀에 피신하는 것의 부당성을 대담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李白이 실마 君主를 두려워하여 고의로 이렇게 작품속에 은유하고 함축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李白的 용맹스럽고 국가를 우려하는 애국주의 정신과 맞지 않으며, 李白的 정신과 위배된다.』¹⁹⁾

위에서 처럼 《蜀道難》의 내용으로 天寶 15年 唐 玄宗皇帝가 피신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故로 두번째 說도 時期나 작품의 內容으로 보아 否認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說은 章仇兼瓊이 朝廷의 통계를 벗어난 吐蕃을 정벌하는 것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것이다. 宋刊本影印《李太白全集》의 《蜀道難》題下에 “諷章仇兼瓊也”라고 쓰여져 있고,²⁰⁾ 沈括과 洪駒父가 이 說을 주장했다.

沈括〔字：存中〕錢塘人(지금의 浙江省 杭州)의《夢溪筆談》卷四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前史稱嚴武爲劍南節度使，放肆不法，李白爲之作蜀道難。按孟榮所記白初至京師，賀知章聞其名首詣之。白出蜀道難，讀未畢，稱嘆數四。時乃天寶初也。此時白已作蜀道難，嚴武爲劍南乃在至德以後肅宗時，年代甚遠。蓋小說所記各得於一時見聞，本末不相知，率多舛誤，皆此文之類。李白集中稱刺章仇兼瓊，與唐書所載不同，此唐書誤也。

〔앞의 역사 新唐書에서 嚴武가 劍南節度使가 되어 방자함이 이룰데 없어 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李白이 그 때문에 蜀道難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孟榮의 기록(本事詩高逸第三)에 의하면, 李白이 처음 京師(長安)에 이르자 賀知章이 그 명성을 듣고 먼저 찾아왔다. 李白이 蜀道難을 꺼내어 보여드리자 다 읽지도 않았는데 감탄을 여러번 하였다. 이 때는 天寶 初이며 이 때 李白은 이미 蜀道難을 지어 있었다. 嚴武가 劍南節度使가 된 것은 至德年 이후인 肅宗 때이므로 年代가 아주 틀린다. 무릇 소설의 기록한 바는 다 일시적으로 듣는 것을 모아 쓰기 때문에 그 本末을 알지 못하며 대개 오류가 많게 되는데 모두 이런 종류의 文章이다. 李白集에는 章仇兼瓊을 풍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唐書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 이것은 新唐書가 잘못 된 것이다.』²¹⁾

위에서 본 것처럼 《新唐書》에 嚴武라고 기재된 것은 잘못이며 李白集에 章仇兼瓊을 풍자하여 지었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蜀道難》이 章仇兼瓊을 풍자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洪駒父(名：獨，紹聖進士) 역시《苕溪漁隱叢話》前集 卷五의《洪駒父詩話》에서도 그것에 同

19) 美興, 〈蜀道難의寓意及寫作年代辨〉《李太白研究》p.424. 台北 里仁書局, 1985.

20) 宋刊本《李太白全集》卷3, p.2.

21) 沈括《夢溪筆談》卷4.

意하고 있다.²²⁾ 또한 宋代 黃庭堅조차도 이 說에 同調하여 《蜀道難》의 “不如早還家(일찍 집으로 돌아감만 못하리)” 句節이 間接적으로 章仇兼瓊을 비평한 것이라고 얘기하였다.²³⁾

그러나 이 說에 대해 近代의 學者 王運熙의 주장한 바를 보겠다.

章仇兼瓊任蜀地長官，雖在天寶十二載之前，但考查歷史記載，兼瓊只有驅迫人民的劣迹，並無跋扈不受中央節制的現象，反之他倒是希望到中央去做官，結果目的到達了，因此這說缺乏事實根據。

[章仇兼瓊은 蜀地方長官에 있었다. 비록 天寶 12年 前에 地方長官에 있었지만 歷史의인 기재에 근거하면 兼瓊은 다만 人民을 驅박한 흔적은 있지만, 결코 桀驁대로 날뛰어 中央政府의 節制를 받지 않으려는 현상은 없다. 오히려 그는 中央(長安)에 가서 官職을 갖기를 바랬고 그 結果 目的이 달성되었다. 이 때문에 이 說은 근거가 미약하다.²⁴⁾

故로 그는 章仇兼瓊이 中央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章仇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新·舊唐書》에 기재되어 있으니, 《舊唐書·吐蕃傳》을 보겠다.

開元二十七年……詔以華州刺史張宥爲益州長史劍南防禦使，主客員外章仇兼瓊爲益州司馬防禦副使。宥既文吏，素無攻戰之策，兼瓊遂專其戎事。俄而兼瓊入奏，盛陳攻取安戎之策，上甚悅。……拔兼瓊令知益州長史事，代張宥節度。二十八年……因引官軍入(安戎)城，盡殺吐蕃將士，使監察御史許遠率兵鎮守。上聞之甚悅。……其年十月吐蕃又引衆寇安戎城及維州，章仇兼瓊遣裨將率衆禦之。……時屬饑寒，賊久之自引退。

[開元 27年(739)에……華州刺史 張宥는 益州長史와 劍南防禦使로, 主客員外郎 章仇兼瓊은 益州司馬防禦副使로 詔書가 내려졌다. 張宥는 文官으로서 평소에 兵法에 대해 잘 몰라서, 兼瓊이 그 軍事 일을 도맡아 왔다. 우연히 兼瓊은 朝廷에 들어와 安戎城(당시 吐蕃이 점령하고 있었음)을 공격하여 빼앗은 계책을 소상히 아뢰자 皇帝는 매우 기뻐하였다. ……兼瓊을 선발하여 知益州長史로 삼아 張宥節度를 대신하도록 승을 내렸다. 28年(740)……官軍을 이끌고 (安戎)城에 들어가 吐蕃將士를 다 죽이고 監察御史 許遠으로 하여금 兵士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임금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 해 十月에 吐蕃이 또 많은 軍士를 이끌고 와서 安戎城과 維州를 공격해 오니, 章仇兼瓊은 將兵을 거느려 잘 막아냈다. ……이 때는 酷寒期여서 吐蕃의 軍士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退却했다.²⁵⁾

위와 같은 歷史的 사실로, 오히려 章仇兼瓊이 中央의 통제하여 吐蕃을 公략하여 戰功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兼瓊이 桀驁대로 邊方에서 날뛰어 中央의 통제를 벗어나 吐蕃을 正벌

22) 《洪駒父詩話》卷5, 《苕溪漁隱叢話·前集》, “嘗見李集一本於蜀道難題下, 注顯章仇兼瓊也, 考其年月近之矣.”

23) 胥樹人 著《李白和他的詩歌》p.185, 上海古籍出版社, 1984.

24) 王運熙, 《略談李白蜀道難的思想和藝術》p.497. 《李太白研究》台北, 里仁書局, 1985.

25) 《舊唐書·吐蕃傳上》卷196上.

함에, 李白이 이를 풍자했다는 說은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²⁶⁾

또한 李白 자신도 《答杜秀才玉松山見贈》이란 詩에서:

聞君往年遊錦城，
章仇尚書倒屣迎。
飛棧絡繹奏明主，
天書降問廻思榮。

⋮

[듣노니 그대 옛날 錦城에 노닐 때,
章仇尚書는 신발 거꾸로 신고 반겼지.
상소 올리길 끊이지 않고 임금님께 아뢰니,
임금님의 친서 내려와 은총을 받네.²⁷⁾

라고 하여 劍南節度使 章仇가 조정에서 戶部尚書兼 御史大夫라는 관직을 받게 되지만, 宰相 李林甫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太眞妃의 從祖兄인 楊國忠을 長安에 使者로 보냈기 때문이다. 李白도 그에 대해 호의적으로 쓰고 있으니, 故로 이 說도 그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넷째, 蜀道難은 樂府의 舊題를 사용하여 특별한 寓意없이 蜀道山川의 景物을 修辭學 技法으로 읊었다는 것이다.

이 說은 明代 胡震亨(1569~1645, 自號: 赤城山人)이 《李詩通》에서 주장한 것이다.

愚謂《蜀道難》，自是古《相和歌曲》，梁陳間作者不乏，詎必有爲而作，白蜀人，自爲蜀咏耳。

[나는 《蜀道難》이 옛 《相和歌曲》 때 부터 梁·陳 사이에 本題로 짓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어찌 반드시 意義를 염두에 두어 지었다고 하겠는가? 李白은 蜀의 사람으로 스스로 蜀地方을 읊었을 따름이다.]²⁸⁾

또 清代의 顧炎武(1613~1682, 字: 寧人, 江蘇, 崑山人)는 《日知錄》에서:

李白《蜀道難》之作當在開元天寶間，時人共言錦城之樂，而不知畏途之險，異地之虞，卽事成篇別無寓意。

[李白의 《蜀道難》의 作品은 開元·天寶 年間に 지어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錦城의 즐거움만 말하고, 길 떠나는 험난함과 다른 지역의 걱정은 몰랐다. 작품 짓는 일에 착수하여 작품

26) 《新唐書·楊國忠傳》卷206, “劍南節度使章仇兼瓊與宰相李林甫不平，聞楊氏新有寵，思有以結納之爲奧助，使仲通之長安，仲通辭，以國忠見，幹貌頽峻，國辯給，兼瓊喜，表爲推官，使部春貢長安。……至京師，見群女弟，致贈遺。……諸楊日爲兼瓊譽。……兼瓊入爲戶部尚書兼御史大夫，用其力也。”란 記錄에서도 알 수 있다.

27) 大野實之助, 前掲書, p.722.

28) 胡震亨, 《李詩通》

을 완성했지만 특별히 의미를 기탁한 것은 아니다.)²⁹⁾

라고 하여 李白의 《蜀道難》이 특별한 기탁함이 없이 그가 蜀地方 사람이기에 蜀道山川을 읊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說은 近來 크게 반박한 이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수긍하는 추세이다. 사실 어느 文作作品을 대함에 時代性과 歷史的인 意義를 念頭에 두어 어떤 製作動機를 억지로 맞추어 넣으면 그 文學作品은 좁은 視角을 가지게 되어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이 說을 따르기로 하며, 여기에 약간 부연할까 한다.

최근에는 이 說에 同調하며 부연하여 새로운 說이 제기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친구가 蜀에 들어가는 것을 보내면서 지었다는 說이다. 이것은 近代의 詹鏞이 《李白蜀道難本事說》에서 주장하고 있다.

意著《劍閣賦》，《送友人入蜀》及此詩《蜀道難》俱是先後之作。蜀道難，敦煌唐寫本詩選殘卷作“古蜀道難”，則其本爲規模古調當可想見。陰鏗蜀道難云“蜀道難如此，功名詎可要”王炎入蜀，或爲求取功名而功名絕不可得。……《劍閣賦》開首即稱威陽，而此詩亦有“不與秦塞通人煙”，“西當太白有鳥道”之句，似白之送王炎在長安或威陽。……此詩之作當在天寶初間，時白方至長安未久，旋遇賀知章，因出近作示之，賀遂嘆爲謫仙人耳。

[나의 생각은 《劍閣賦》，《送友人入蜀》 및 이 《蜀道難》은 다 先後하여 지은 것이다. 蜀道難은 敦煌 唐寫本詩選 殘卷에 《古蜀道難》으로 되어 있어 그 근본을 살펴 볼 수 있는 古調의 規模로 되어 있다. 陰鏗의 蜀道難에 “속으로 가는 길이 이처럼 험난하니 功名을 어찌 바랄 수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王炎이 蜀으로 들어가 功名을 얻으려 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다. ……《劍閣賦》 첫 句에 威陽이라 말했고, 이 詩 속도난에서 “秦國과는 一切 往來 없었네”, “서쪽 太白山에는 새가 날아 넘을 수 있는 길만 있네.”라는 詩句에서 마치 李白이 王炎을 長安이나 威陽에서 蜀으로 보내며 지은 것 같다. 이 蜀道難은 天寶 元年에 지어졌고, 이 때 李白은 곧 長安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賀知章을 만났는데 近來의 작품을 꺼내어 보여 주니 賀知章은 謫仙人이라고 극구 칭찬해 주었다.]³⁰⁾

李白의 《蜀道難》은 그의 《劍閣賦》，《送友人入蜀》과 先後하여 지은 것이고 친구인 王炎을 蜀으로 보내며 지었다고 하였다. 詹鏞은 孟榮의 《本事詩》의 句節중에서 賀知章을 만나는 것을 例로 들어, 이 작품이 天寶 初년에 長安이나 威陽에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劍閣賦》와 《送友人入蜀》의 作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劍閣賦

送友人王炎入蜀

威陽之南；直望五千里。

見雲峯之崔嵬，前有劍閣橫斷。

29) 顧炎武, 《日知錄》

30) 詹鏞 《李白蜀道難本事說》 《李白詩論叢》 pp.34~35. 人民文學出版社, 1984.

倚青天而中開，上則松風蕭颯颯。
 有巴猿兮相哀，旁則飛湍走壑。
 瀉石噴闕，洶湧而驚雷。
 送佳人兮此去，復何時兮歸來。
 望夫君兮安極，我沈吟兮歎息。
 視滄波之東注，悲白日之西匿。
 鴻別燕兮秋聲，雲愁秦而暝色。
 若明月出於劔閣兮，與君兩鄉對酒相憶。

친구 王炎을 蜀에 보내며

咸陽의 남쪽

바라다보니 五千里나 먼 길,
 구름 깬 산봉우리 높이 우뚝 서 있고
 그 앞에 劔閣이 가로 질러 버티있네,
 푸른 하늘에 걸쳐 중간엔 열려 있어
 위는 휘잉 부는 소나무 바람소리,
 巴蜀의 원숭이 애간장 녹이게 울고
 옆은 나는듯 폭포수 흘러내려,
 바위 틈의 바람은 누각을 감싸 들고
 용솟음 치니 우뢰소리마저 놀라네,
 친구를 여기서 멀리 떠나 보내니
 다시 그 어느 때나 만날런지,
 그대 바라보노니 어디메나 이르렀오
 난 침울히 읊조려 긴 한숨만 실뿐,
 푸르른 물결 동으로 흘러 내림 보고
 하얀 해가 서쪽 가에 숨어 슬플뿐,
 기러기 재비 울며 떠난 가을 소리
 구름은 근심인양 秦나라 해거름 빛,
 밝은 달 빛 劔閣 위에 비친다면
 자네와 타향에서라도 술잔 들어 그리워하리.)³¹⁾

이 작품은 蜀에 있는 劔閣을 읊고 있고 후반부에 친구인 王炎이 蜀으로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것에 대한 感懷를 쓰고 있다. 즉 마지막의 “若明月出於劔閣兮，與軍兩鄉對酒而相憶” 詩句가 核心이다. 明月, 素月, 皎月等 詩人이 어쩌면 意圖의으로 흔히 사용했으며, 劔閣은 天然의인 蜀의 要塞地이니, 그곳에 밝은 달이 떠 올라 望樓(望台)를 밝게 비친다면 그것은 곧 平和요 泰平盛世이다. 그런 때가 되면 그대와 더불어 어느 곳에서든지 歡樂의 술좌석을 마련하여, 서로 苦難에 찼던 옛날을 회상하며 그리워 하리라. 詩人은 特技가 아닌 賦를 지으면서 “劔閣”이란 가장 重要

31) 宋刊本, 《李太白全集》卷25, p.8.

32) 大野實之助, 前掲書, p.195.

하고 유명한 要塞化 지역의 障地를 題名으로 했고 副題로 “送友人王炎入蜀”을 써서 特異한 一面을 보이고 있다. 그는 同鄉의 司馬相如를 능가하는 文壇의 巨物이 되겠다고 말 한적이 있으니 《贈張相鎬 其二首》, “賦”에서도 《蜀道難》처럼 萬古絶晶의 雙壁이 되기를 바랬을런지도 모른다. 그의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 内容과 斬新한 意境이 아주 비슷함을 알 수 있으니 살펴 보겠다.

- 劔閣賦：威陽之南，直望五千里。見雲峯之崔嵬，前有劔閣橫斷，倚青天而中開，……
蜀道難：西當太白有鳥道，可以橫絕峨眉峯。……劔閣崢嶸而崔嵬，……連峯去天不盈尺。
- 劔閣賦：上則松風蕭颯，
蜀道難：枯松倒掛倚絕壁。
- 劔閣賦：有巴猿兮相哀，
蜀道難：猿猴欲渡愁攀援……但見悲鳥號枯木，雄飛雌從繞林間。
- 劔閣賦：旁則飛湍走壑，瀉石噴閣，洶湧而驚雷。
蜀道難：飛湍瀑流爭喧豨，砢崖轉石萬壑雷。
- 劔閣賦：送佳人兮此去，復何時兮歸來。
蜀道難：問君西遊何時還。
- 劔閣賦：望夫君兮安極，我沈吟兮歎息。
蜀道難：側身西望長咨嗟。

등의 句節은 그 읊고 있는 内容이나 意境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이 《劔閣賦》는 《蜀道難》과 쓰여진 時期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送友人入蜀》이란 詩를 보겠다.

見說蠶叢路，崎嶇不易行。
山從人面起，雲傍馬頭生。
芳樹籠秦棧，春流繞蜀城。
升沉應已定，不必問君平。

듣자니 蠶叢에서 애써 뚫은 蜀 길
험난하여 걸기 쉽지 않다 하네.
산봉우리마다 눈앞에 우뚝우뚝
구름은 말머리에 일어나는듯.
꽃향기 냄새 잔도에 자욱하고

33) 蜀王의 先祖인 蠶叢과 魚鳧가 蜀의 길을 뚫었다는 故事.

봄 강물 蜀城을 휘감아 흐르네,
 흥망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것
 君平에게 물어 볼 것도 없어라.

이 작품도 蜀으로 떠나는 친구를 보내며 지은 것인데 그 내용이 《蜀道難》과 비슷하니 또 살펴 보겠다.

- 送友人入蜀：見說蠶叢路
 蜀道難：蠶叢及魚鳧，開國何茫然
- 送友人入蜀：山從人面起，
 蜀道難：西當太白有鳥道，可以橫絕峨眉嶺。

두 作品이 다 蠶叢의 神話를 引用하고 있으며 山勢의 險峻함을 읊은 句節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最近에는 이 說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形편이다.

또한 유심히 각 작품을 考察해보면 《蜀道難》은 “又聞子規啼夜月愁空山”이라 했으니 子規가 우는 봄에 지은 것이고, 《送友人入蜀》역시 “春流繞蜀城”이란 句節로 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劔閣賦》는 “鴻別燕兮秋聲”이라 되어 있어 가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이 봄을 기점으로 선후하여 지었다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곧 《蜀道難》작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서 지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蜀道の 風景을 읊으며 당시에 蜀으로 떠나는 友誼가 아주 돈독했던 친구인 王炎에게 주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이 비교적 논리에 맞다고 하겠다.³⁴⁾ 또 《劔閣賦》의 副題로 〈送友人王炎入蜀〉을 쓰기도 했으니, 失意者들은 그 때 그러한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다.

다음 쓰여진 時期와 地點에 대해 考察해 보자. 詹鏜은 孟榮의 《本事詩》 高逸 第三篇의 “李白初自至京師，……賀知章聞其名，首訪之，……復請爲所文，出蜀道之難以示之，讀未竟，秋嘆者數四，號爲謫仙。(李白이 처음 촉에서 京師로 들어왔는데…… 賀知章이 그의 명성을 듣고 먼저 찾아와 …… 또 한 지은 바의 詩文을 보기를 청함에, 蜀道難을 꺼내어 보여 주었다. 다 읽지도 않았는데 칭찬이 여러 번이었고, 別號를 謫仙이라 하였다.)”라는 句節을 들어 天寶 元년에 蜀道難을 咸陽이나 長安에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³⁵⁾

또한 近代의 學者 王定超 역시 《蜀道難別論》에서;

詹鏜同志의《李太白詩文系年》說,「《劔閣賦》,《送友人入蜀》,《蜀道難》三者俱是先後之作。」這是很有見地的.

34) 李白은 王炎이 죽은 후 《自慄水道哭王炎》詩 三首에서 “哭向茅山雖未催，一生淚盡丹陽道。”라 하여 그에 대한 강렬한 友誼를 나타내고 있다.

35) 詹鏜, 前揭論文, p.35.

〔唐鎔의 《李太白詩文系年》에서 「《劍閣賦》, 《送友人入蜀》, 《蜀道難》의 세 작품은 다 선후하여 지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見解가 뚜렷한 것이다.³⁶⁾

라고 전적으로 동조하였다. 楊遂의 《李太白故宅記》에서 “先生拖屣劍閣, 西入長安. (李白先生은 劍閣에서 나막신을 끌고 서쪽에서 長安으로 들어갔다.)”³⁷⁾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또 唐代 魏顥의 《李翰林集序》에서 “白亦因之入翰林, ……故賓客賀公奇白風骨, 呼爲謫仙子. (李白이 조정에 들어가 翰林이 되었다. …… 빈객인 賀知章이 李白의 風骨을 奇異하게 여겨 謫仙이라 呼稱했다.”³⁸⁾”라는 사실로도 李白은 틀림없이 少年期에 蜀의 名山大川을 漫遊했고 青年期에 出蜀하면서 蜀道를 지나 長安에 갔으니 결코 그의 풍부한 想像力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을 통해서 쓰여진 作品임에 틀림없다.

《劍閣賦》의 첫 句에서 “咸陽之南”이라 말했고 《蜀道難》에서 “劍閣崢嶸而崔嵬”라 하고 있는 등 각 작품의 意境이 비슷하다.

近代의 學者 郭沫若은 《蜀道難》을 開元 18年(730) 이전에 썼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는 李白의 《與韓荊州書》에서 말한 “三十成文章, 歷抵鄉相”(三十세에 文豪가 되고, 두루 두루 鄉相에 이르겠다는 것)과 그의 天才性에 두었다. 詩中에 東北部의 險難한 것만 描寫했지 東南部의 莊嚴하고 美麗한 곳은 답사도 않고 描寫도 안했고 蜀道에 대해서 局限的으로 알고 있으니, 쓴 시기는 開元 18年(730) 이전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⁹⁾ 그러나 그것은 李白이 大文豪와 宰相이 되보겠다는 所望일 뿐 잠시 翰林院 生活을 했지만 布衣生活에 不遇했으니, 근거가 너무 미약하고 天才的인 資質로만 傑出した 작품과 위대한 詩인이 될 수는 없기에, 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唐鎔의 說에 따라 세 작품이 다 先後하여 쓰여졌으며, 時期는 天寶 元年에 咸陽이나 長安에서 李白이 그의 친구 王炎에게 주는 作品이 《蜀道難》이라고 思料된다.

Ⅲ. 結 論

蜀道の 險峻함과 그 山川의 景物을 修辭學的으로 奇奇妙妙하게 묘사하고 生動感있게 전달해 “奇之又奇, 然自騷人以還, 鮮有此體”라고 當時에 好評을 받은 李白의 《蜀道難》은 그 製作動機나 쓰여진 時期 및 地點에 대해 現在까지 論爭이 紛紛하여 정설이 없었다.

그 說들은 첫째 《新唐書·嚴武傳》과 范攄가 《雲溪友議》에서 嚴武가 虜官·杜甫를 危害하려 함에, 李白이 그것을 풍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說은 杜甫와 嚴武사이에 詩로 和答한 內容이 매우 友好的이고, 杜甫가 虜官에게 의지한 時期는 天寶 12年인데 반해 《蜀道難》을 수록한

36) 王定超, 《蜀道難別論》《李太白研究論叢》p.250. 巴蜀書社, 1987.

37) 楊遂 《李太白故宅記》

38) 魏顥 《李翰林集序》, 宋刊本 《李太白全集》卷一.

39) 郭沫若, 《李白與杜甫》p.167. 人民文學出版社, 1972.

殷璠의 《河岳英靈集》은 天寶 12년에 편집되었기에 적어도 《蜀道難》은 그 이전에 쓰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說은 內容과 時期的으로 맞지 않다.

또 杜甫의 性品으로 보건데 進言에 依해서 損害되는 일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政敵에 依해 危害받을 정도로 모난 人品은 아니라고 하겠다. 李·杜로 並稱하는데, 李白은 直線의으로 辛辣하게 是非를 批評하겠지만, 杜甫는 迂廻的으로 甚深한 憂慮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 說은 蕭士贊이 《分類補注李太白詩》에서 唐 玄宗皇帝가 安祿山の 亂에 蜀에 피신하는 것을 걱정하여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安祿山の 亂은 天寶 15년에 일어났고, 《蜀道難》을 쓴 시기는 적어도 天寶 12年 이전에 쓰여졌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時期的으로 맞지 않는다. 內容上으로도 李白이 天寶 15年 安祿山の 亂을 목도하고 체험하여 쓴 詩들은 당시 戰亂의 참혹상을 적나라하게 表現하고 있다. 그러나 《蜀道難》은 그런 점이 없으니 意境이 맞지 않는다. 故로 이 說도 건강부회라 하겠다.

세번째 說은 沈括이나 洪駒父가 主張한 章仇兼瓊이 朝廷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吐蕃을 정벌하려는 것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것이다. 宋代 黃庭堅도 이 설에 동조했다. 그러나 《舊唐書·吐蕃傳》의 기록에 章仇兼瓊이 中央政府의 통제하에 吐蕃을 공략하여 戰功을 세우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네번째 說은 胡震亨과 顧炎武가 주장한 것으로 樂府舊題를 사용하여 특별한 寓意없이 蜀道山川의 風物을 읊었다는 것이다. 이 說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당한 일이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도 부합된다. 대체로 이 說을 수용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즉 李白이 친구가 蜀으로 떠남에 그를 보내며 蜀道山川을 描寫하여 親友의 友誼를 結合시켜 썼다. 특히 近代의 學者 詹鏞은 《李白蜀道難本事說》에서 《劍閣賦》와 《送友人入蜀》의 작품이 《蜀道難》과 先後하여 지었다고 하여, 그 쓰여진 動機를 《劍閣賦》의 副題目으로 붙은 《送友人王炎入蜀》을 들어 친구인 王炎이 蜀에 떠나는 것에 대하여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時期와 地點 역시 이들 作品이 지어진 시기와 孟棨의 《本事詩》를 들어 天寶 元年쯤 長安이나 咸陽에서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本 論文에서 究明한 것과 《蜀道難》을 考察해 본 결과 그 內容과 意境이 서로 一致함을 알 수 있어 이 說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곧 《蜀道難》은 어떤 具體的인 풍자가 아니고 그저 樂府 舊題를 사용하여 친구가 떠나가는 地域인 蜀道山川의 景物을 쓴 것이다. 李白 自身이 蜀에서 성장하며 실제로 체험한 것과 出蜀하여 見聞을 넓힌 것을 修辭學的인 技法으로 悲憤慷慨하게 描寫했으며, 또한 親友에 대한 友誼도 드러내 보이며 天寶 元年쯤 長安이나 咸陽에서 지은 作品이라고 볼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詹鏐：李白詩文擊年，人民文學出版社，1984。
裴斐：李白十論，四川人民出版社，1981。
林庚：唐詩綜論，人民文學出版社，1987。
胥樹人：李白與他的詩歌，上海古籍出版社，1984。
郭沫若：李白與杜甫，人民文學社，1972。
安旗：李白縱橫探，陝西人民出版社，1983。
詹鏐：李白詩論叢，人民文學研究，第一輯，山西人民出版社，1988。
大野實之助：李太白詩歌全解，早稻田大學出版部，1981。
久保天隨：李太白全詩集，日本圖書，1988。
安旗：李白傳，文化藝術出版社，1984。
宋刊本影印：李太白全集，台北，東方書店，1960。
安旗·薛天緯·閻琦：李詩咀華，北京十月文藝出版社，1984。
劉開揚：唐詩論文續集，上海古籍出版社，1987。
景仁文化社影印：舊唐書(上·下) 新唐書(上·下) 서울 景仁文化社，1977。

1) 論文

- 王輝斌：蜀道難探索，李太白研究論叢，巴蜀書社，1987。
樊興：蜀道難的寓意及寫作年代辨，李太白研究，台北，1985。
俞平伯：蜀道難說，李太白研究，台北 里仁書局，1985。
陳宗賢：李太白詩述評，台灣師大，國文研究所集刊 第十五號 台灣師大，1971。
夏敬觀：說李白，李太白研究，台北 里仁書局，1985。
喬象鍾：李白樂府詩的創造性成就，文學遺產，增刊，北京 中華書局，1986。
黃天驥：李白詩歌研究的幾個問題，文學遺產，增刊，北京 中華書局，1986。
嘯流：也談《蜀道難》寓意，唐代文學，第一期，陝西人民出版社，1982。
王啓興：《蜀道難》新探 質疑，唐代文學，第一期，陝西人民出版社，1982。
梁超然：綜論李白《蜀道難》的作意問題 唐代文學論叢，第二期，陝西人民出版社，1982。
安旗：《蜀道難》求是，唐代文學論叢，第二期，陝西人民出版社，1982。

Summary

Suggestions on Li Pai(李白)'s *the hard road to Shu(蜀)*

Kwak Ih-boo

Li Pai(李白)'s *The hard road to Shu(蜀)* the title used by the other poets of the old tim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cellent poems of all ages, since it shows freshness and creativity. It is not because he described the water and mountain as they stand, but because he mixed them well with his literary sense and techniques.

It is by means of the hard road to Shu(蜀) that Li Pai(李白) was prais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romantic poets in China. Scholars have different viewpoints on the hard road to Shu(蜀) and there is still not any established theory on the work. Such being the ca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appear many an objection or contradiction to the existing theories, especially with regard to when and where the poem was written and what the poetic motive was.

Considering all the existing theories on Li Pai's the hard road to Shu(蜀) the following might be four possible assumptions.

Assumption 1 : It was written to satirize that Yan-Wu(嚴武) tried to inflict an injury on Fang-guan(房官) and Du-fu(杜甫).

Assumption 2 : It was written for fear that Xian-Zong(玄宗) of Tang(唐) should take refuge in Shu(蜀) during the An Lu-Shan(安祿山) Rebellion.

Assumption 3 : It was written to satirize that Zhang qiu jian qiong(章仇兼瓊) tried to conquer Tu fan(吐蕃) withou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ssumption 4: It was written again with a new image of his unique rhetoric, but with the same title of the poem which was simply written in the past.

In this paper, a strong emphasis is placed on examining the above mentioned assumptions one by one and finding out the poet's main idea shown in this poem. Since Li Pai(李白) is a great poet in China there is not any agreement on the opinion on this work. It is because various historical books or literary books have different positions, depending on